중국국가도서관 백년사 1909-2009*

이 길 자
중국국가도서관 부연구관원
jizi2002@hotmail.com

2009년 9월 9일은 중국국가도서관 개관 100주년 기념일이었다. 지나간 100년 동안 중국국가도서관은 중국역사발전에 따라 발전함과 아울러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정신문명건설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중국국가 총 서고로서 전국 書目(서목) 중심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은 국민의 문화권리와 기본문헌욕구를 보장하는 후원이다.

1909-1999

청나라 말기 유럽 문화는 중국에까지 진보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 많은 진보적인 人士(인사)들은 도서관은 사회공공기관으로서 국민교육에 심원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朝庭(조정)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제안하였다. 光緖(광서) 33년(1908) 당시 體仁閣(체인각)[1]의 대학사 겸 掌學部(장학부)인 張治洞(장치동)[2]은 兩江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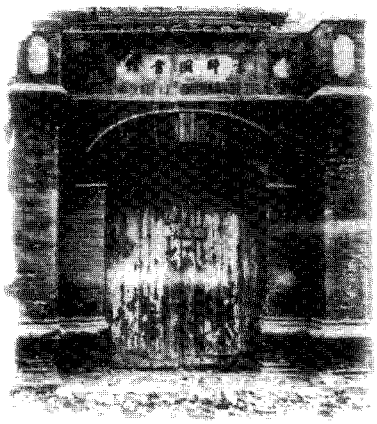
* 이 글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말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록하였기에 우리말과 다른 부분은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함.

1) 체인각은 자금성 태화전 앞 광장의 건물로서 명나라때 건축한 건물이다. 강희 17년 황제는 여러 명의 학자들을 집결하여 이곳에서 명나라 역사를 반영한 明史(명사)를 편찬하였다. 체인각의 대학사는 청나라 건륭 13년에 만들어진 정 1품 관직 명칭이다. 이런 대신들은 군기대신의 직무도 겸하고 있다.

2) 장치동(1837년-1909년), 하북성 출신으로서 1863년에 장원 급제하였다. 청나라 말기 정치 무대에서 활약한 청류파로서 서태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882년의 산서성 암행감사를 계기로 지방총독 실력파 행렬에 상승하게 되었다. 후에 호광총독, 량강총독을 거쳐 체인각의 대학사와 군기대신을 역임하였다.

督端方(량강총독단방)[3]에게 위탁하여 湖州(호주) 姚覲元(요근원)의 "咫尺齋(지척재)"와 楊州(양주) 徐乃昌(서내창)의 "積學齋"(적학재)의 개인문고 장서를 수매하여 북경에 移管(이관)하게 하였다. 常熟(상숙) 瞿氏(구씨) 鐵琴銅劍樓(철금동검루)에서는 이미 전문직원을 고용하여 여러 종류의 문헌복본을 제작하여 북경에 공급하였다.

宣統元(선통원)년(1909년) 청나라 정부는 경사도서관 건립을 비준하였는 바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의 전신이다. 도서관 장소는 什刹海(십찰해) 古樓(고루) 西鴉兒(서아아)가에 있는 廣化寺(광화사)이다. 도서관 장서는 國子監南學(국자감남학)과 內閣書庫(내각서고)의 송나라와 원나라의 일부분 각본, 명나라 황실도서관 文淵閣(문연각)의 장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또 돈황유서에서 발굴한 당나라 經文(경문) 9천말이와 일부분 개인서고에서 수매한 장서도 포함하였는데 총 장서가 10만권도 달하지 못하였다. 1912년 경사도서관은 정식으로 개관하여 도서관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북양정부 교육부 사회교육사 제1임과장 겸 교육부감사인 魯迅(로신)은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명의로 각 성에서 발간한 각본을 경사도서관에 기증하여 소장하게끔 하였다. 1913년 銅活字版(동활자판)으로 된 대형 類書(류서) "古今圖書集成"(고금도서집성)이 도서관에 收藏(수장)되었다. 로신은 또 각 성에서 나오는 지방지와 저명한 탁본도 경사도서관에 수집하여 소장하게끔 하였다. 1916년 경사도서관은 내각비준을 거쳐 중국경내에서 정식으로 발간하는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게 되었다. 즉 경사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의미한다.



▲ 경사도서관

1925년 중화도서관협회 이사회가 북경에서 성립됨과 동시에 당해 5월 25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량계초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당해 6월 2일 중화문화교육기금회는 미국에서 반환한 1900년의 전쟁 배상금으로 영구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당해 10월 23일 중화교육문화기금회와 교육부가 합작하여 국립경사도서관을 관리함과 아울러 경사도서관을 국립경사도서관으로 개명하였다. 도서관 관장은 량계초, 부관장은 이사광으로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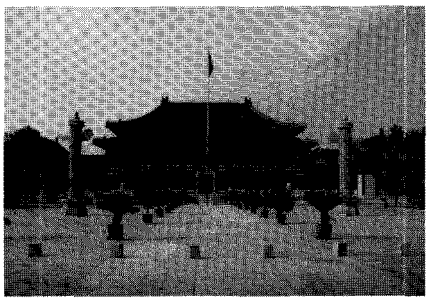
廣化寺(광화사)가 什刹海(십찰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고 지세가 낮고 습도가 높기에 도서 소장에 불리하였다. 게다가 도서관을 오는 이용자도 많지 못하였다. 1917년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경사도서관은 方家(방가)거리에 있는 國子監南學(국자감남학) 옛터로 이사하여 새롭게 개관하였다. 도서관 형편이 많은 개선을 하여 초보적으로 근대도서관의 규모를 갖추었다. 후에 경제난으로 인하여 경사도서관은 여러 번 장소를 옮겼다. 중화문화교육기금이사회와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 또 합작하여 관리하는

3) 량강총독의 정식 직함은 지방 군무대신으로서 청나라 9품 관직이다. 량강은 강남과 강서를 말한다. 청나라 초기 강소성과 안휘성을 통괄하여 강남성이라 하였다. 단방은 만주족인데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량강총독으로 있었다.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다. 1928년 국립정부의 성립과 함께 국립경사도서관은 국립북평도서관으로 개명함과 동시에 方家(방가)거리에서 中南海(중남해) 居仁堂(거인당)으로 이사하여 1929년 1월에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당해 8월 국립북평도서관과 중화문화교육기금이사회가 1926년에 건립한 북해공원 내에 위치한 북경도서관과 합병하였고 館名(관명)은 의연히 국립북평도서관이라 하였다. 관장은 저명한 교육가이며 민주혁명가인 蔡元培(채원배) 선생님이셨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국립북평도서관은 전국 연합목록을 편찬하였는 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진일보로 수행하였다.

1931년 당시 중국정부는 북해 서쪽 편에 있는 황궁 마구간 옛터와 公府(공부)연병장에 국립북평도서관 신관을 건축하였다. 건축면적이 3만평방미터나 되는 신관은 미국사람이 설계하였는데 도서관 본관은 콩크리트로 되었고 이미지가 당나라 궁전을 본따서 설계하였다. 도서관 외모는 중국궁전식으로 설치하였으나 내부시설은 양식을 본따서 장식하였다. 200여석이나 되는 열람좌석을 갖추고 시설이 선진적이고 환경이 아늑한데다가 확 트인 정원까지 갖춘 국립북평도서관 신관은 1930년대 원동 일대에서는 제일 선진적인 도서관으로 되었다. 이해 중국도서관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 가입하였다. 1931년은 중국도서관역상에서 획기적인 한해였다. 국립북평도서관에서 청나라 피서지 하북성 승덕 문진각의 "四庫全書"(사고전서)를 소장하고 있기에 도서관과 중남해 사이의 거리를 文津街(문진가)로 명명하였다.

항일전쟁 시기 일본에게 함락된 중국은 도서관 경비가 결핍하고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여 있기에 도서관 사업 역시 많은 신고를 겪게 되었다. 국내의 진귀한 고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귀중고서를 중국 남쪽으로 운송하였다. 항일전쟁 8년 사이에 국립북평도서관의 업무 중심 역시 남쪽으로 전의하여 상해, 장사, 곤명, 홍콩, 중경에 판사처[4]를 설치하였다. 1939년 4월에 곤명[5]의 도서관 판사처가 도서관본부로 되었다. 국립북평도서관은 간고한 항일전쟁 시기에도 도서관업무를 견지하고 도서관사업을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중고서를 보호하고 중국 서남쪽의 역사자료와 항일전쟁 문서를 수집정리하여 도서관 소장자원을 더 풍부하게 하였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 후 국민당정부가 날로 부패한 탓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백성들은 생활난에 견디기 힘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도서관 역시 곤경에 처하여 겨우 유지하는 형편으로 장서가 겨우 140만권밖에 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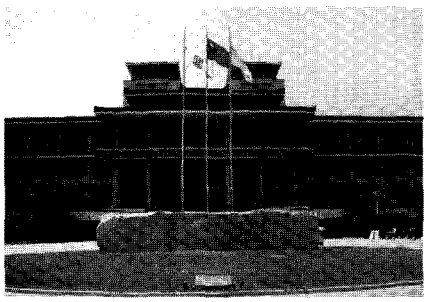
▲ 文津街(문진가) 북경도서관

4) 당시 도서관 판사처는 임시도서관으로서 지방문헌을 수집하고 현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5) 일본의 중국침략으로 인하여 북경대학, 청화대학, 남개대학이 호남성 장사로 전의하여 장사임시대학으로 간칭하였다. 당시 국립북평도서관 관장 원동리는 임시대학과 합작하여 임시대학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임시대학도서관은 당지 지방문헌을 수집함과 동시에 대학 학생과 선생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곤명은 지금의 운남성 성소재지로서 호남 임시대학이 곤명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학이름을 국립서남연합대학으로 명명하였다. 원동리가 도서관 관장으로 되고 8명의 북평도서관 사서가 도서관직원으로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도서관 역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1950년 3월 6일 국립북평도서관을 국립북경도서관으로 개명하였다. 1951년에 북경도서관으로 개명하였다. 동시에 애국장령 채악장군을 기념하여 건축한 송파도서관의 장서도 북경도서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1909년부터 시작하여 1949년 신중국이 건립되기 전까지 중국국가도서관은 4차례나 이사하고 개관하거나 또 경제난과 전쟁으로 하여 폐관하는 상황도 있었다. 신중국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도서관에 대한 수요도 날로 높아지게 되었다. 문진가에 위치한 북경도서관도 여러 차례의 보수와 확충을 거쳤으나 이용자 독서 욕구와 해마다 증가하는 소장수요를 만족하기 어려웠다. 1975년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주은래 동지의 비준을 거쳐 북경시 서쪽편에 위치한 해전구 백석로교에 신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자리는 원나라 애국명장 기념사찰 옛터였다. 1983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한 신관은 4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1987년 10월 6일에 이용자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관도서관명은 등소평 동지께서 친히 쓰시었다. 건축면적이 14만평방미터인 신관은 운치가 좋은 자죽원공원 근처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우수하여 이용자들의 좋은 평판을 받았다. 문진가에 있는 도서관 구관은 분관으로서 신관과 면적을 합하면 전체 도서관 면적이 17만평방미터로써 아시아에서는 제1위, 세계적으로는 제 5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장자원도 2,000만 건에 달하였다. 1998년 1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북경도서관은 중국국가도서관으로 개명하였다. 1999년 4월 16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인 강택민 동지께서 중국국가도서관을 시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제사도 쓰셨다.



▲ 중국국가도서관

경사도서관 1909년 건립 → 국립경사도서관 1925년 → 국립북평도서관 1928년 → 북경도서관 1951년 → 중국국가도서관 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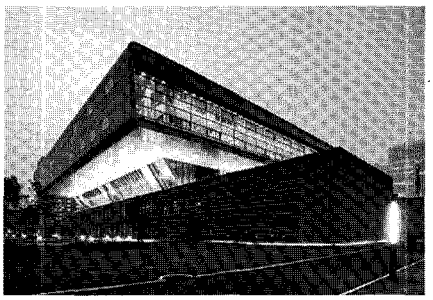
2기공정-디지털도서관

개혁개방의 심도있는 발전과 함께 중국경제가 발전하고 중국의 전반 실력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국가도서관 2기공정[6] 및 국가디지털공정이 국가 15년 계획의 중점공정으로 인민폐 12억을 투자

6) 1987년에 지은 도서관을 1기공정이라 하고 2008년 9월 9일에 개관한 디지털도서관을 2기공정이라 한다. 이 두 건물은 백석로교에 위치하여 있고 디지털도서관은 구관의 북쪽편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2004년에 토목건축을 시작하여 2008년 9월 9일에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중국국가도서관 2기공정은 지하 3층과 지상 5층으로 되었는데 건축높이가 27미터로써 서고, 열람실, "사고전서" 전문서고, 학술교류 구역과 디지털도서관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2기공정에 2,900개의 열람좌석을 설치하여 일일 이용자 수용량이 8,000명에 달한다. 도서관 2기공정의 건축면적은 8만평방미터로서 전체국가도서관의 건축면적을 25만 평방미터로 증가함으로써 중국국가도서관이 세계에서 제 3위를 차지하게끔 하였다. 당나라 건축풍격을 본따서 건축한 도서관 구관은 장엄하고 웅장하나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신관은 현시대의 개방성적인 도서관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의 발전사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2기공정의 열람실 광선은 자연광선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독서 환경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여러 형태의 의자가 곳곳에 있는데다 16키로미터에 60만권의 개가 형식으로 된 문헌은 이용자들에게 개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수 백대의 컴퓨터가 집중 혹은 분산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디지털문헌정보 획득에 편리를 주고 있다. 도서관 2기공정은 검색, 열람, 자문, 소장, 인터넷 등 서비스가 한 곳에서 한번에 진행될 수 있다. 연구구역, 학술구역, 예술구역, 휴식터, 전시구역, 교육구가 있어 이용자들의 검색과 문헌이용 및 교류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기공정은 도서관의 전통서비스 방식과 디지털서비스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이용자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과학기술함량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국가도서관이 중국도서관업계에서의 리드작용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발전인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한 후 중국국가도서관 신관은 일반 이용자서비스를 위주로, 구관은 연구형 이용자서비스를 위주로, 분관은 고적관으로서 고서 연구이용자 서비스를 위주로 하여 도서관 서비스 새로운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중국국가도서관이 중국정신문명건설에서 더 중대한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 중국국가도서관 2기공정 및 디지털도서관

특색소장자원

중국국가도서관은 모택동 주석의 제1호 도서관 대출증, 주은래 총리의 도서관건축 비준문서, 등소평 동지의 친필제사문과 강택민 주석의 "중국국가도서관"이라고 쓴 중요한 서류들을 보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영락대전", "사고전서", "돈황유서", "조성금장" 등 문헌들도 보존하고 있어 세계 각국 학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永樂大典(영락대전)

영락대전은 명나라 영락년간에 편찬한 대형 백과전서로서 唐(당)으로부터 시작하여 명나라 초기에 출판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학, 지리, 역사, 도덕, 사회, 법률 등 8,000여 종류의 典籍(전적)을 포함하였다. "영락대전"은 프랑스의 백과전서나 영국의 대영백과전서보다 300백년이나 먼저 출판한 백과전서로서 총 22,877권, 범례와 목록이 60권, 11,095책에 총 3억7천자로 된 거작이다.

영락대전 원본은 신비하게 유실되어 지금까지 중국역사상에서 현안으로 남아있다. 副本(부본)도 소장관리가 엄격하지 못하고 또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세계에 800여권의 400책 좌우만 남아있어 진귀한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중 223책이 중국 국내에 있는데 중국국가도서관에서 1912년부터 수차례의 노력을 거쳐 221책을 소장하고 있다. 2002년 중국국가도서관에서는 전문기술인원들을 조직하여 "원본보존" 원칙으로 영락대전 복원작업을 시작하였다. 영락대전 복원작업이 이미 완수되어 그중 9건은 전시에 참가하여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보도록 하였다.

■ 四庫全書(사고전서)

사고전서는 청나라 건륭년간에 출판된 중국최대의 총서로서 현재 전세계에서도 유일한 문화거작이다. 총 8만권에 8억자로 된 사고전서는 중국의 고대서적을 經(경), 史(사), 子(자), 集(집)으로 분류하여 편찬하였는데 先秦(선진)시기에서 시작하여 건륭시기에 출판된 3,503종류의 도서를 포함한 중국전통문화문헌의 총화이다. 당시 7부를 제작하여 북경 자금성의 文淵閣(문연각), 료녕 심양 고궁의 文溯閣(문소각), 북경 원명원의 文源閣(문원각), 승덕피서산장의 文津閣(문진각)에 소장하였는데 이를 "內廷四閣全書"(내정사각전서) 라고 한다. 이외 3부는 양주의 文匯閣(문회각), 진강의 文宗閣(문종각), 항주의 文瀾閣(문란각)에 소장하였는데 이를 "江浙3閣全書"(강절3각전서)라고 한다.

사고전서는 출판된 후 전쟁과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곳으로 이관하여 보존하게 되었다. 1909년 청나라 정부는 승덕 피서지 문진각의 사고전서를 경사도서관에 이관하게끔 제안하였다. 1913년 북양정부 교육부는 노신 선생에게 위탁하여 문진각의 사고전서를 경사도서관에 移管(이관)하였다. 문진각의 서가, 책함 목록까지 포함하여 경사도서관에 이관하여 소장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서는 251평방미터에 달하는 전문 사고전서서고를 구축하여 항온 항습하에서 본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사고전서는 중국전통문화의 경전으로서 중국의 만리장성과 자금성 등 문화유적과 함께 중국문화의 진귀한 문화재로서 중국사람들 역시 이로 하여 무한한 자호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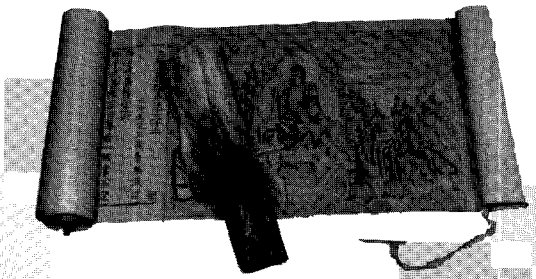
■ 敦煌遺書(돈황유서)

19세기 초엽 돈황유서는 갑골문, 漢晉簡牘(한진간독), 명청역사와 함께 史學界(사학계)의 4대발

견으로 되었다. 돈황은 고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곳으로써 중국문화, 인도문화, 이랑문화, 서양문화 등 세계 4대문화와 유교, 불교, 道教(도교), 마니교 등 세계 종교들의 중심지기도 하였다. 1900년 돈황막고굴 장경동에서 발굴된 돈황유서는 중고시기의 사회문화, 문학사상, 종교철학, 군사정치, 민족언어 등 방면을 연구하는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양문화와 서양문화 교류에 큰 기여를 하였다. 유감스러운 것은 돈황유서가 발굴된 지 얼마 안 되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약탈로 많은 문헌들이 외국으로 유실되었다. 이런 원인으로 지금 돈황학이 탄생되어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10년 당시 중국 개명인사들의 제안에 근거하여 청나라 정부는 돈황유서를 북경으로 운송하였다. 9,000권이 경사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중국 돈황학의 발전연구에 편리를 제공하였다. 중국국가도서관에 현재 16,000건의 돈황유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세계 돈황유서의 3분의 1을 점한다. 돈황학의 수집, 연구, 정리, 상관문헌의 발간도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신중국이 건립된 후 중국정부에서는 돈황유서 보호와 이용에 심혈을 기울려 전문소장 서고와 학술연구중심을 설립하였으며 돈황문헌유서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전환하여 원본보호와 자원공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趙城金藏(조성금장)**



▲ 조성금장

조성금장은 1148년에서 1171년에 산서성 운성 서남쪽 天寧寺(천녕사)에서 조각인쇄한 대 藏經(장경)이다.6,900권의 불교 典籍(전적)을 수록하여 1,570부 6,000만자에 682질에 달하는 조성금장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일 일찍 인쇄한 불교경문이다. 조성금장은 당시 민간기금에 의하여 13세에 출가한 수녀가 30년 동안에 조각인쇄한 중국제일부 목판인쇄로 된 開寶藏(개보장)의 복사본으로서 산사성 조성의 광화사에 보존되어 있었다. 趙城(조성) 廣勝寺(광승사)에 보존되었다 하여 조성금장이라 한다. 금나라 시기 전쟁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을 원나라 시기에 다시 목판인쇄하였다.

1933년에 불교계 전문가가 광승사 탐방시 4,957권 되는 조성금장을 발견하였고 또 본 藏經(장경)이 元明시대 전의 불교경문 원문을 수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開寶藏(개보장)이 이미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또 조성금장이 유일한 복본이기에 진귀한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상상할 수 없어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1941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조성금장을 약탈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스님과 인민해방군에 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였다. 일본병과의 조성금장 보호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8명이 희생되었다 .1949년 조성금장도 북경도서관에 호적을 부쳐 항온 항습의 조건

에서 보존되고 있다.1964년에 조성금장 복원작업이 이미 완수되였다. 1984년 조성금장을 기반으로 하여 중화대장경(중국어판)을 출판하여 본 문화유적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게끔 하였다.

맺는말

1909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국국가도서관은 중국의 사회발전과 함께 탄생, 성장, 발전하여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다. 경사도서관에서 국립북평도서관으로 발전하였고 북경도서관에서 국가도서관으로 발전하였다. 중국국가도서관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중국도서관업계의 발전역사도 볼 수 있다. 지나간 한세기 동안 중국국가도서관은 중국문화 발전과 문화보호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기술발전과 교육 문화 발전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백년 국가도서관은 명실부합되는 지식의 전당이다.

⇒ 이번호 '도서관인의 명암(明暗)'은 지면관계상 쉽니다.